

여름 까지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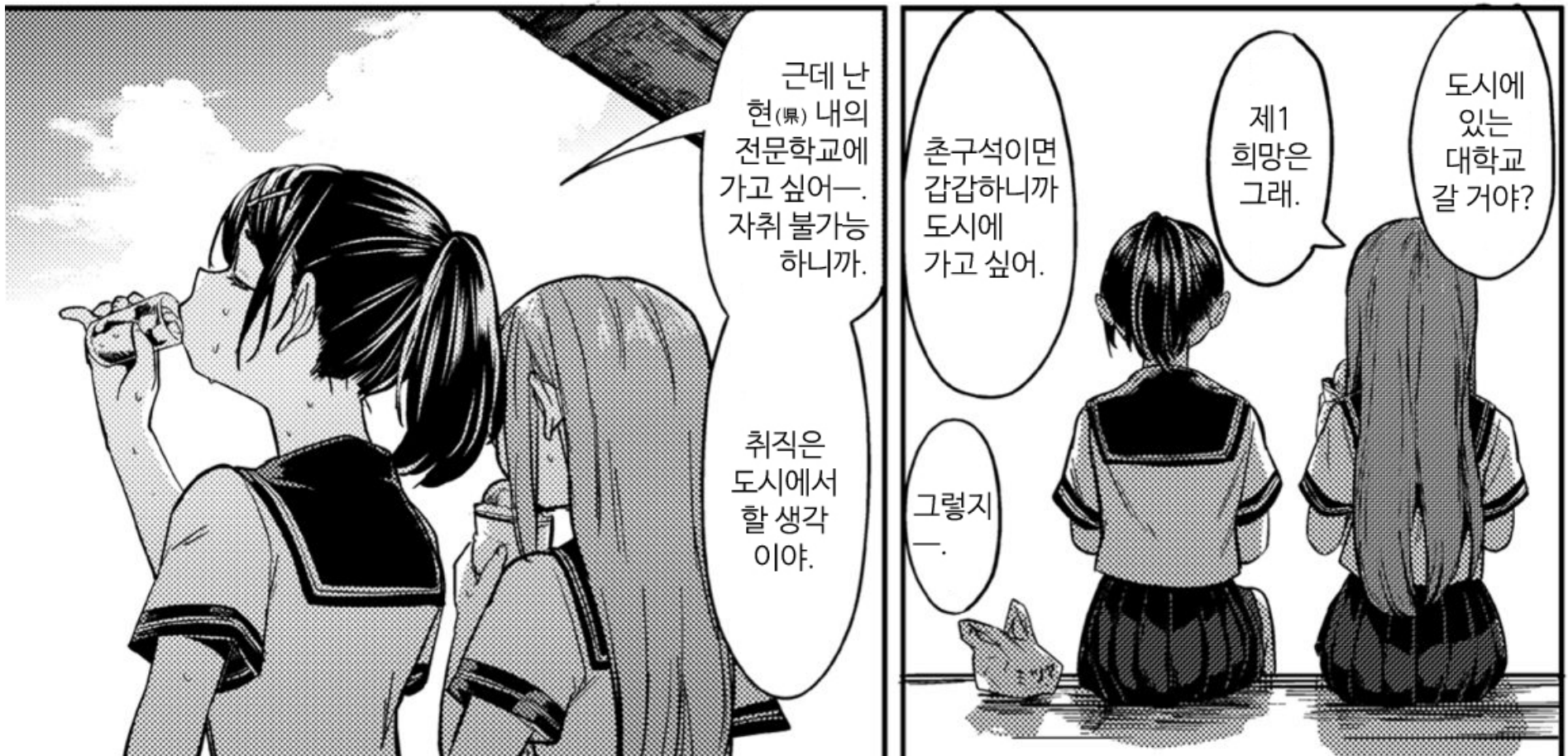
관 제

R-18 성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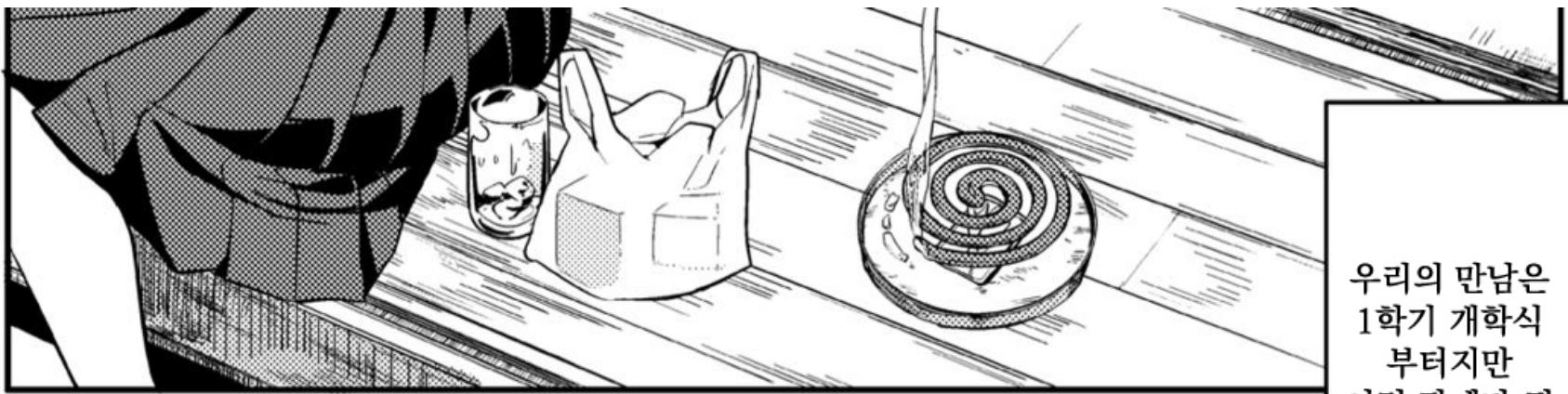




1







우리의 만남은
1학기 개학식
부터지만
이런 관계가 된
만남은
골든위크
부터다.



세 현에
너머의
도시에서
게이
퍼레이드가
있었고



거기서
우연히
만났다.

3



이토 양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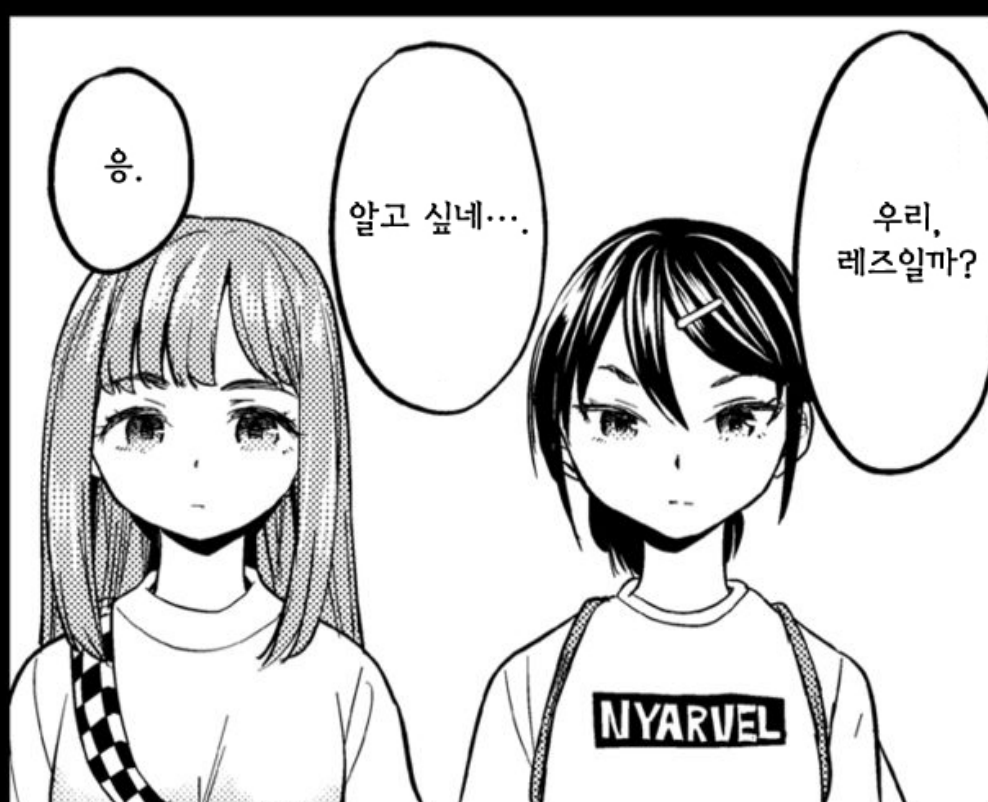
와타
나베
양?



지금도
이야기
하지
않는다.

우리는
교실
에선
이야기
하지
않는다.

주변 친구도
그룹도
전혀 다르다.



친구도 연인도
아닌 섹프 정도의
석연찮은 관계죠.

밤과 후에
둘이서
'자신찾기'를
하고 있습니다.

그 뒤로
우리는

이토 양은
가슴 주무르는 거
좋아하는구나.
언제까지
주무를 거야?

젖꼭지
촉촉하고
탄력 있어서
빠지게 돼.

가슴은
묵직해서
기분
좋은 걸.

もみもみ

그건
몰라.

그럼
레즈네.

그저
와타나베
양의 몸이
기분 좋은 거
일뿐일지도.

아-.
역시 나는
여자의
몸이라도
흥분할 수
있나 봐.

이토 양,
숨이
거칠어.
귀가
뜨거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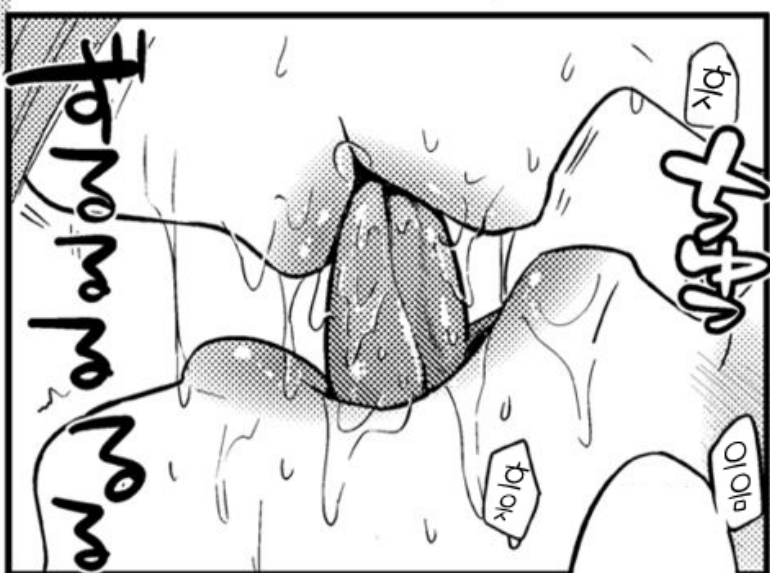
내 몸으로
여성이
자신감
생겨.
성적 흥분을
할 수
있다는 건
기쁜 걸.

오—.
그럼 레즈네,
와타나베 양.

음.
그건 아직
모르겠어—.

서로,
서로의 입장을
확인한 적은
없지만.

몸은
맞댈 수
있다.



그야 맛있
으니까.



키스,
싫었어?

와타나베
양의
키스는
집요하네.

그건
아니지만

잡아
먹히는
느낌
이야.



どどん

どどん

どどん

あ

どどん

どどん

どどん

あ

あ

あ

あ

あ

どどん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あ









성욕이
센 거
같아.

.....나
말이지,
쉽게 느껴
버리는
걸까?

바보,
방금 젖꼭지
빨아 줄 때
부터
그랬어.

굉장히
미끌미끌
거리네.
쿤닐해서
이렇게
된 거야?

에~.
완전
괜찮다고
생각해.

자신이
음란한 게
아닌지
불안해.



‘내
가슴으로
이렇게
됐어’ 라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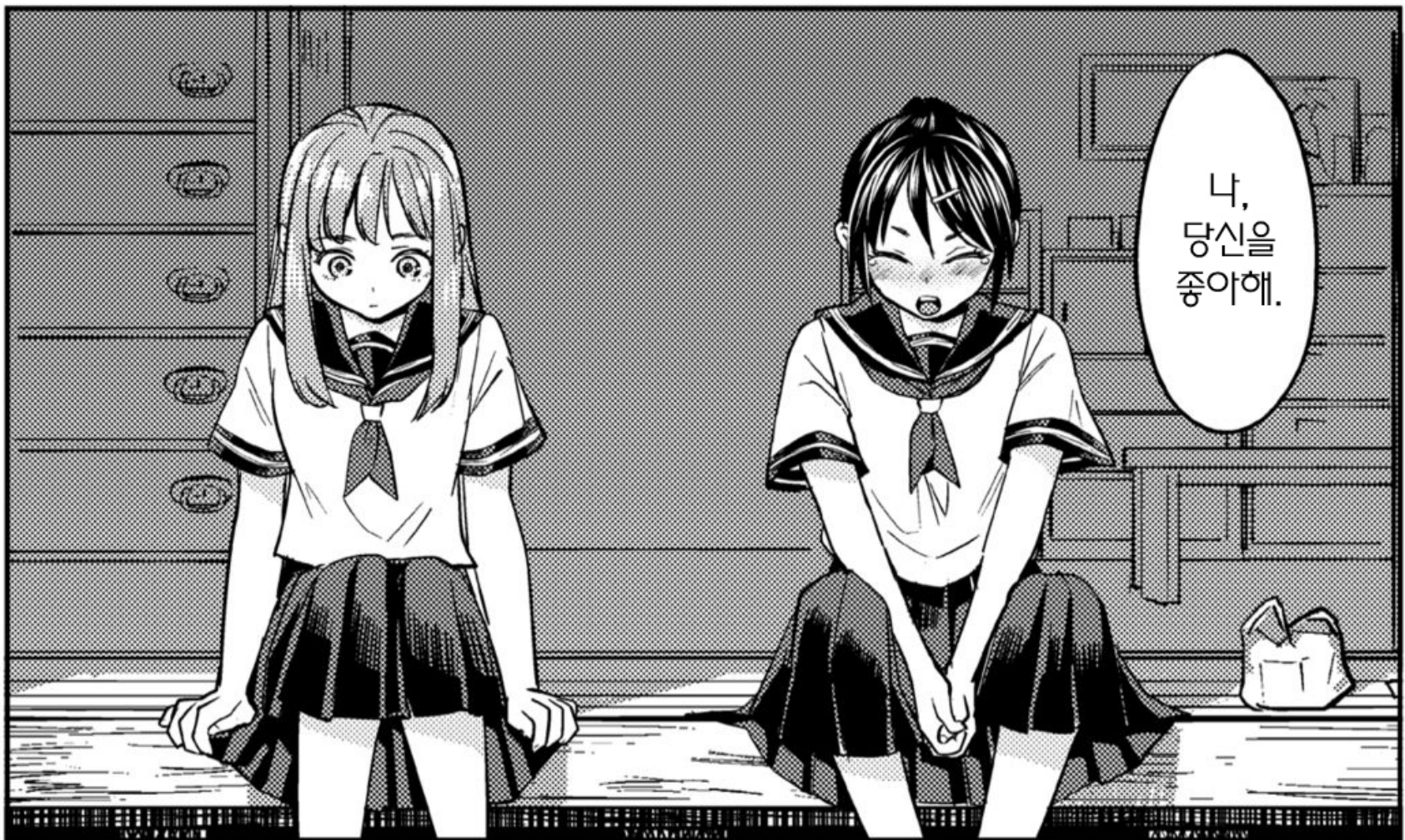
‘그렇게
좋아하는구나,
나를~.’
이라고 연인도
기뻐할 거야.

그야
이렇게나
클리,
뽕뽕해지면
너무나도
사랑
스러운걸.











판권
 ■타이틀 ■
 여름까지의 관계.
 ■발행일 ■
 2019년 8월 11일
 ■서클 명 ■
 네다오레 (Nedaore)
 ■연락처 ■
 URL: <http://nedaore.web.fc2.com/>
 MAIL: nedaore@gmail.com
 ■인쇄 회사 ■
 에이코우 인쇄

작가 후기

‘심플한 백합 에로 망가를 그리자’가 콘셉트인 한 권입니다.
 화이트로 수정해도 괜찮을 정도로 음모를 새끼땀게 하는 편이 좋을까...
 하고 고민했습니다.

역식 후기: 여케만 예쁘면 수북해도 좋을 듯. 신음 식질 귀찮아져서 중간에 관렸습니다...
 어제 작업한 건 19년 12월 거, 이번 건 19년 8월로 어쩌다 보니 역순 번역입니다... (2020. 10. 09)

